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 오래전에 울린 종소리처럼

위녕, 가을이 익어 가고 있다. 어제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했다지. 태풍은 열대의 뜨거움을 강제적으로 온대지방으로 전달해 내는 자연의 방식이라는데, 고여 터질 것 같은 열대의 정열이 온대지방으로 오면 거의 폭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엄마는 오래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있어. 마음속의 압력들을, 사소한 분노들을, 실망감과 상처들을, 어쩌면 뜨거운 사랑까지도, 조금씩 처리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그렇게 내 마음의 뜨거움들도 다른 이들에게 가서 폭력으로 변하지 않을까 함께 겁이 났었지.

이번 주말 엄마는 남해 금산에 다녀왔단다. 어릴 때는 동해 바다의 그 광활하고 드넓은 기상이 좋았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강릉에 가서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온 적도 많았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서해 바다의 노을이 그렇게 좋더구나. 흐릿한 바다색도 좋았고, 노을을 보기 위해 무작정 차를 몰고 서해로 떠난 일도 많았지. 그런데 요즘 엄마는 남해 바다에 그리움을 두고 있단다. 둥글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고, 배들이 오가는 호수 같은 그 바다 말이야. 이제는 바다가 바다 저 혼자 있지 않고 배들과 섬들을 안은 채 있는 게 좋아.

참 이상하지. 차를 몰아 남해를 건너가는데 금산이 보였어. 돌아와 엄마는 <<남해금산>>이라는 이성복의 시집을 꺼내들었다. 한 번도 만나 본 일 없는 이 시인을 엄마는 이 십 년째 흠모하고 있었다. 물론 그분의 시를. 그러나 시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분을 만나 혹여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해도 엄마는 아마 존경을 멈추지는 않을
거야. 가을이기 때문이었을까, 엄마는 새삼 소녀처럼 외로
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런 시가
엄마의 가슴을 건드리고 지나갔어.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
떨며 멍침멍침 물러서는 산 빛에도
닿지 못하는 것
행여 안개라도 끼이면
길 떠나는 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
오래전에 울린 종소리처럼
돌아와 낡은 종각을 부수는 것
아무도 그를 타이를 수 없지
아무도 그에겐 고삐를 땄 수 없지

가끔 시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는 것이 신기하다. 어쩌면 돈도 안 되고 어쩌면 성적에도
소용이 없고, 어쩌면 세상에서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
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시는,
홀로 숨어 우는 가을 귀뚜라미처럼 조그맣게 존재하면서
우리의 가장 여린 부분을 어루만진다.

간이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혈한 저녁이 옵니다.

낮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 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류나무 사이로 잎이 춤춥니다.

엄마도 낡은 테이블이 네 개 놓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무는 남해를 떠났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모든 배들이
저녁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처럼 항구로 모여들더
구나. 그들은 아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거대한 바람을
견디겠지. 너의 가을은 어떠하니? 엄마가 바빠서 아마도
외로움이 더할지 몰라.

그러나 바람이 거세다는 사실보다 바람이 거세다는 사
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들다는 것을 엄마는 절감하며
산다. 사람이 저마다 외롭다는 사실보다 사람이 저마다 외
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든 것을 말이야. 하지
만 우리는 가끔 순응하며 더 거대한 것들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네가 힘들다는 사실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
고 어떻게든 너 자신과 화해해야 하겠지.

이런 시, 들어 볼래? 이성복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되어
버린 <남해 금산>.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으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 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엄마는 흐린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보다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워녕, 날이 많이 흐리다. 흐려도 좋은 날일 수 있기를. 서울로 와 보니 수영장은 밤 9시에 벌써 문을 닫았더구나. 엄마는 그 사실도 받아들였어.

자, 오늘도 좋은 하루!

공지영 산문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에서...